



서길수 | (주)경특자원 대표이사

자원 재활용의 어제와 오늘

40년전 철이 귀하던 때에 부모님을 따라 서울 용산에 정착하여 아버님이 고물상을 하게 되었다. 고철이라는 것이 고작 미군부대에서 나온 드럼으로 연탄불 뚜껑을 만들고 남은 것이나 한강 모래속에서 전쟁통에 버려진 강통탄피 등을 캐는 것이 당시 이촌동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었는데, 5.16군사혁명 이후 공업이 발달하므로써 안양지역에 생산공장이 많이 생겨 안양으로 이전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고물상법이라는 것이 생겨 고물상을 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했으며, 모든 고철, 피지 등은 매입자와 매출자,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불기재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약법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소도웃을 일이었다.

그래도 법은 법인지라 내가 안양지역 회장을 거쳐 경기도 회장을 10여년 하면서 금은방 자전거 오토바이 경정비 라디오 고물상 등 경찰서 허가업체 경기도 지부 회원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계몽하였으며 당시 경찰서에도 수시로 왕래하며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회원들 권익신장에도 노력하였으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큰 지장이 많았다.

그런 공을 인정하여 당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고물상법이 악법이라 하여 취소하였는데 경찰청에서 다시 유실물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추진중인 것을 대화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강력한 유실물법이라 전국의 회원을 동원 유실물법 반대 궤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준비중 경찰청에서 유실물법 개정을 취소하였다는 통고를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과 자주 이 일들을 회상하곤 했다.

그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거 환경부에서 한국폐자원 재활용 수집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통고가 있어 전국을 돌며 지부, 지회를 결성하고 마침내 전국이 중앙지역인 속리산에서 환경부 차관 및 환경부 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 참석한 임직원 1만여명의 회원들이 활기찬 발전을 할 듯 하였으나 우리 나라 단체 회원들은 득이 되어야만 구름같이 몰리고 득이 되지 않으면 모두 나몰라라하는 자기 밖에 모르는 회원들이지만 일본에 가보면 첫째 국가가 우선이고 다음이 단체이며 본인은 그다음인데 또 일본 같은데는 주택가 한 가운데 고물상이 있어도 인접 주민들이 도와 주

고 협조해 주는데 우리 나라는 인접에 고물상이 있으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시청등에 수시로 고 발하는 실정이라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하여 국가 기초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따라서 환경보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수해 때마다 이 업종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짬게차로 수해복구를 하여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관련 장관 및 도지사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지만 재활용 단지가 없이 그린벨트나 공업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다 전과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 예로 주택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업지역은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안되고, 상업지역은 이 업종들이 입주하기로는 땅값이 비싸고 마땅히 영업할 장소가 없다.

이 업종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시 군 구마다 조성되어 재활용사업이 계속 영

위되어야만 될 것이다.

철금속 비철금속 파지 등이 50%가 국내에서 조달되고 50%는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재활용품은 사장시키고 외화를 낭비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활용 단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저 거대한 중국과 인도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비철금속 가격이 6 배나 폭동하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각부처별로 재활용 수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약력

(사)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 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 자문위원



.....● 폐기물 운반